

# 길고도 고달팠던 이국에서의 감별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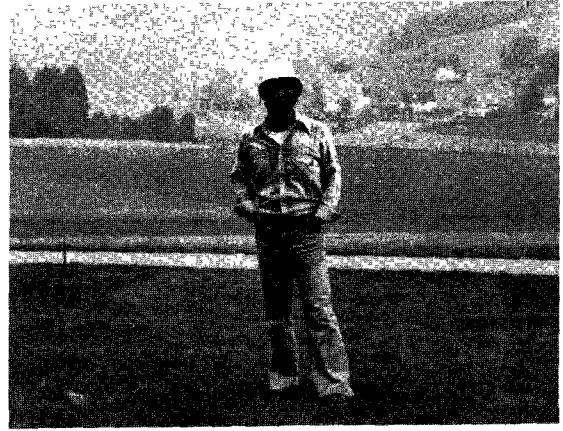
(完)

박 기 환

〈고등감별사〉

## 검소하고 친절한 독일인들

처음 몇개월간의 독일생활은 안정되지 못한 기다림의 생활이었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생활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 내가 거주하고 있던 곳이 조그만 농촌동네이어서 그런지 끝없는 들판과 맑고 푸른 하늘에 들리는 것은 새소리와 가끔 들리는 젃소들의 울음소리 뿐이고 깨끗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동네 길거리 때문인지 서울의 복잡한 생활속에서 살다 온 나에게서는 휴양소에나 온것 같아서 큰도시로 이사를 갔으면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번씩 들곤했다. 그러저럭 몇달을 살고보니 그런대로 조용한 시골 동네에 정이 들었다. 그간 몇개월의 기간이었지만 독일어공부에 많은 노력을 한덕분인지 이웃사람과 의사소통에 큰 불편 없이 되었고 많은 독일친구도 사귀게되었고 그들의 초대를 받아 가정방문도 하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도 많아짐에 따라 그들의 인간성과 생활방식을 알수있는 기회가 많았다. 학창시절에 역사선생님과 가끔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있던 독일인의 근면성과 검소한 생활을 직접 느낄 수가 있었다. 농촌



남독일 목초지에서 필자

사람이나 도시인이나 모두가 허영이 없는 자신들의 분수에 맞는 생활들을 하고 있어서 그사람의 의상만 봐도 그사람의 월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거의 알수 있을 정도였다. 대인관계 역시 현실적이고 거드럼 피우는 일이 없고 타인에게 친절과 봉사로 능력이 있는데까지 남을 도우려고 애쓴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서독의 명승지를 두루 구경했는데 서독의 제일 큰 무역항구이며 국제항구 도시인 함브르크(Hamburg)의 조선소와 관광객들이 유럽 제일의 유흥가라고 일컬으며 즐겨찾는 선창가의 립—퍼반거리등, 말로만듣던 라인강의 기적이 어떤것인가 하는 호기심에서 찾아간 라인강은 푸르른 한강의 물과는달리 공장의 폐수로 더럽혀진 불투명한 검은빛이 도는 물위를 크고 작은 각국의 화물선들이 분주히 오르내리고 있어서 공업국인 독일산업의 동맥이되고 있었다. 라인강변 양쪽의 야산에 끝없이 펼쳐진 청포도 밭에서 생산되는 포도주(Wein)는 독일인들이 온갖잔치에서 즐겨마시는 술의 공급원이며 석회질이 많은 수질때문에 냉

수를 마시기꺼려해서 음료수대용으로 마시는 서독의맥주 소비량은 맥주의나라답게 소비량은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작업중 휴식시간이나 저녁밥상에 차나 물 대신 맥주를 마셔가며 식사를 하는 것을 독일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세계에서 최초로 대학이 생겼고 또 「황태자의 첫사랑」으로 유명한 대학도시인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는 현재도 성이나 옛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있어서 해마다 많은 외국관광객이 찾아들고있다. 서독사람들도 북부, 중부, 남부지방 특유의 방언이 있고 각지방마다 성질이 판이하게 달라서 필자도 독일사람의 행동과 말소리를 보고 들으면 어느지방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 할수 있을 정도였다. 독일도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양분되어 있지만 동서독 국민이 서로 서신과 전화로 소식을 전할수 있으며 왕래도 할 수 있다 국력이 부강한 서독이 재통일을 염원하며 경제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동독을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서독의 도로망은 유럽에서 제일 잘되어 있어서 초행자도 주소와 지도만 있으면 어디든지 쉽게 찾아갈수 있다.

#### 시험감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서독에 와서 시험감별을 한지 5개월이 지난 어느날 기다리던 기쁜소식이 왔다. 독일에서 단 하나 밖에없는 독일제통의 PL 부화장인 카트만(Kathmann)이라는 부화장에서 시험감별한 것이 성적이 좋아서다음달부터 한국감별사를 채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카트만이라는 부화장은 서독내에서는 큰부화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20년이상 일본감별사들이 일을 하던곳이었는데 우리회사의 덤핑에 물러나면서도 일본감별회사에서는 한국감별사가 무슨실력으로 일할해나가겠느냐고 알아보며 얼마 못가서 한국감별사들이 물러갈것으로 생각

하고 대수롭지않게 부화장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얼마 후에 일본감별사를 통해서 알게되었다. 근 반년간을 감별을 못하고 놀고 있던 나는 4명의 감별사를 초청해와서 일을 시작했다.일을 갔던 첫날 부화장종업원들은 한국감별사가 새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우리를 보고 한아가씨가 “한국사람도 일본사람하고 같구나”하며 우리를 반겨 주었다. 그곳 사람들은 한국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몹시들 궁금히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자 많은 부화장종업원과 사무실직원들이 우리들의 작업 광경을 보려고 몰려 들었다. 감별을 끝내고한국감별사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감별실과 감별실의 배설물 통을 깨끗이 닦아서 정돈해 놓는데까지 신경을 써가며일을 했다.

감별을 할적마다 우리는 한국감별사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최선을다했다 일본 감별사보다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저 노력들을 했는데 일본감별사들이 그간 일을 잘해서인지 한국감별사가 일본감별사보다 좋다는 평을 못들어서 섭섭은 했지만 일본감별사가 한국감별사보다 더 나을것은 없다는 평을 받아 그간은 감별사라면 일본감별사라고했는데 그 후로는 독일부화장 주인들은 한국감별사와 일본감별사를 동등시해서 이야기했다. 그전에 일본감별사보다 감별료를 좀 싸게해서 일을 해주겠다고 해도 별로 흥미없어하던 다른 부화장 주인들도 우리가 카트만부화장을 감별한 후 부터는 실력을 인정해서인지 몇군데 부화장에서 감별청탁이 와서 몹시 기뻐다.

#### 한국인 감별사들끼리의 싸움으로 이미 지 흐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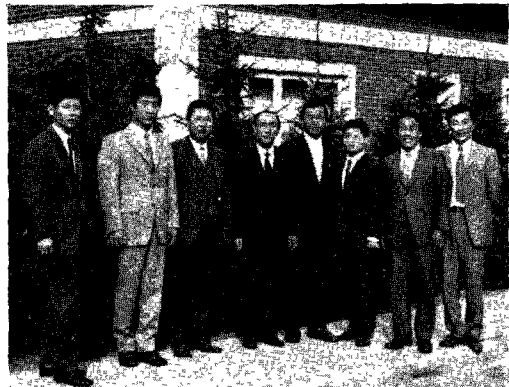
이렇게 점점 독일에서 한국감별사가 좋은평을 들으며 확장 일로

에 있는 반면에 유럽에서 감별사 진출의 전망이 좋다는 네델란드와 벨지움에서는 한국감별사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당시 네델란드에 진출한 2명의 감별사들은 부화장측으로부터 감별을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환영을 받고 있었는데 사소한 수입금 관계로 서로싸움을 자주해서 결국은 그곳의 경찰에까지 알려지게되어 부화장측으로부터 감별은 잘해서 좋은데 싸움을 해서 더 이상 고용을 못하겠다고 해고를 시키는바람에 결국은 둘이 모두 쫓겨나고 한국감별사의 진출의 길마저 끊어지고 말았다. 벨지움은 축산업이 발달해서 부화장도 많아 한국감별사의 많은 진출이 기대됐던나라이어서 지위있고 활동력있는 본토인을 지점장으로 기용하고 5명의 한국 감별사를 진출시켜서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초청되어온 감별사들의 실력이 고르지 못하고 단결이 잘되지 않아서 결국은 벨지움 땅에 한국감별사는 실력이 형편없다는 나쁜 평판을받고 손해배상까지물고는 쫓겨나고 말았다. 설사 몇몇의 동료도 실력이 좀 모자란다고 해도 서로 동포애로써 뭉쳐 협조했던들 결과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 후로는 네델란드와 벨지움에는 한국감별사가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후 독일에서는 한국감별사가 좋은 평을 들어가며 진출을 계속해서 활동인원이 10명이 되었다. 어느덧 10명의 한국감별사가 진출해서 일을하고 있구나 생각을하고 처음 개척할 당시 고생을 겪었던 보람이 있구나 생각을 하니 흐뭇하기 짝이 없었다.

### 재독 감별사친목회 탄생으로 단합의 기반을 다져

여러동료들과 같이 생활하다보니 자주 사소한 의견충돌이 있었다. 결국은 몇

사람의 동료들이 우리를 떠나 다른 회사로 옮겨 덤핑을 하므로써 싸움을 걸어오기에 양보를 해가며 타협을 시도해 보았지만 성과가없어 결국은 모두가 2년동안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싸움속에서도 감별사자리를 확장하여 근30명정도의 한국감별사가 독일내에 진출하고 있었지만 덤핑으로 인하여 큰수입은 없었다. 그 당시 독일내에한국감별사가 30여명 일본감별사가 40여명 있었는데 서로가 덤핑을 하다보니 결국은 모두가 수입이 적어서 당초에 고국을 떠날때의 큰 포부와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 생각다못해 동료와 함께 주동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살기위해서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 보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매년 2번의 모임을 갖는 「재독감별사친목회」로서 서로간의 친목과 이익을 위해 모임을 갖다보니 점차 모두가 공동이익을 위하여 단결하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감별사들과도 유대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상호협약을 맺어 그동안 덤핑으로 인해서 형편없이 떨어진 감별료를 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리고 서로협조해가며 일을 해가고 있어서 감별사의 년간 수입이 5~6 백만원가량 되는데 이 정도



스페인양계 전시회에 참석한 한국부화인들과 기념촬영

가 된것이 불과 5년전의 일이다. 지금은 유럽에서는 독일의 감별사의 대우가 제일 좋은 편이며 스페인의 감별계가 혼란기를 겪고 있는데 하루속히 상호협조하여 감별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난십여년간 한국감별사로서 긍지를 갖고 출국한 한국 감별사들의 끈질긴 감별시장 개척의 노력과 착실한 생활태도로써 현재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현재 서구라파 각국에 50명 이상의 한국 감별사가 각각 주어진 환경속에서 희망을 갖고 착실히 일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미국감별협회인 암척회사에 27명의 한국인 감별사가 계약을 맺어 일하고 있으며 또 5~6명씩 한그룹이 되어 일하고있는 그룹이 몇개 있어서 미국에만도 40~50명 정도의 한국감별사가 일하고 있어 현재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감별사는 모두 약 백여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감별계는 이제부터 근 십년이상 해외시장 개척과 우리의 감별기술을 해외에서 과시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한국감별사들의 모체인 대한양계협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선후배 감별사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합심단결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야 되겠다.

이러한 실제적인 노력으로서 한국감별사의 해외진출 초창기에 해외 한국감별사가 많은 피해를 본 바있는 실력미달자의 무질서한 해외진출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한다.

이것은 그동안 어려운 난관을 무릅쓰고 이룩하여 놓은 한국감별사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종 있을 해외파견 감별사를 선발할 때에는 반드시 감별실력을 위주로 선정해 줄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바란다.

**실력있는 감별사가 해외에 진출 해야된다.**



자택에서 이웃 소녀들과

또 그렇게 되어야만이 벌써 수 십년 전에 해외에 진출해서 세계감별시장을 독점 하다시피한 일본감별사들과 있을지도 모르는 실력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겠다. 장래 한국감별사의 해외진출 전망은 현재보다는 좋을것 같다. 이제 까지는 해외진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내감별업계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국내 감별사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전들을 하고있는 실정이나 현재 서독스페인 미국등으로 진출하고 있는중이며 앞으로 해외진출의 길이 넓어질 전망이므로 해외진출의 꿈을 버리지 말고 출국하는 그날까지 실력확보에 노력할것을 감별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내년도의 감별사 해외진출 전망은 유럽에서 7~8명 미국암척회사에서 5~10명 정도의 감별사 초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파견 감별사 선정시에는 가능한한 현재 직업감별을 하고있는 감별사를 선발해서 보내고 그자리에 완전한 감별기술 연마의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후진감별사들이 감별기술을 충분히 연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것이 바람직 하다 하겠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해외에서 감별사초청이 있을때 항상 실력있는 감별사 보낼수 있는 실력있는 인적 자원을 확

보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감별업이 일생의 직업은 될 수 없다**

끝으로 현재 감별기술을 배워서 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그간 외국감별계에서 보고 느낀 것을 참고로 해서 몇가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감별사 직업이란것이 다른 직업과 같이 승진이 되거나 일생동안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다만 외국으로 진출하는 한 방편이나 짧은 기간동안 감별일을 해가지고 약간의 사업자금을 마련해서 사업의 토대를 만드는 목적에 적합할지 모르나 40세 이후에도 감별일을 계속 한다는 것은 건강상이나 자기의 사회적 발전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3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감별을 배우겠다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겠다. 구라파나 미국의 감별회사들이 20대의 젊은 감별사들을 위해 고령자의 고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취업할 수 있는 감별기술을 습득하자면 각 개인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약 2년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된다.

끝으로 국내외 감별인들은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합심 노력함으로써 해외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애써줄 것을 부탁하며 필자 역시 그러한 노력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줄고를 끝맺는다.



◎호흡기병(CRD)특효약  
◎빠다리병(포도상구균증)특효약  
이영리예발매중

# 청랑리가축약품

◎지방주문환영

서울·동대문구전농 2동597의32  
(한국육계회 연락처) ☎ 966-8780

